

노래방 도우미 진화?

밖에서 말맞추는 '대기방' 등장

혼자서 직접 뛰는 '프리랜서'도

지난달 29일 노래방 도우미 단속을 강화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변칙적인 신종 업종이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밖에서 손님들을 만나 함께 노래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도우미 대기방'. 예약 손님과 미리 '직장 동료' 등으로 입을 맞춘 뒤 들어가면 '일행'이나 '애인'으로 간주돼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목포지역에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닌 '노래 도우미'를 모집하는 구인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무료로 배부되는 생활정보지 구인란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20대~30대 아가씨 및 미시 초보자 환영 ▲월수입 400만~500만원 이상 보장 ▲T/C(봉사료) 당일지급 ▲출퇴근 차량운행 ▲휴무일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래 도우미 모집' 광고가 실리고 있다.

목포시 하당지구의 Y노래방 업주는 "미리 필요한 도우미 숫자를 전화로 예약하면 도우미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다만 밖에서 '애인' 또는 '직장 동료'라고 말을 맞추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 도우미 자신들이 명함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도 생겨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새 법률만 시행이 보 도방과 도우미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동선효과'(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로 이어져 새로운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새 법에 따라 노래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골프치던 50대 연못 빠져 숨져

지난 11일 오전 11시 46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H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J(55·부산시)씨가 흙 인근의 3m 깊이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캐디 등이 발견,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J씨가 동료 3명과 함께 오전 8시30분께 티업에 들어가 4번 홀에서 자신이 친 공이 워터 해저드(water hazard)에 빠지자 이를 건지려고 물에 들어갔으며, 동료들은 모두 자신의 친 공을 찾는 과정에서 J씨가 물에 빠진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제 퇴소' 앙심... 한밤중 불 질러

■ 광주 남구 복지원 방화 용의자 체포

음주·청소 다툼이 7명 사상 참사로

강제퇴소와 청소 문제로 동료 수용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노숙자 숙소에서 불을 질러 4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보 11월11일자 3면〉

광주 남부경찰은 12일 노숙자 숙소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김모(39)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새 희망 복지 선교원' 내 쉼터 B동 2층에 있는 이 불 보자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노숙자 최모(48)씨 등 4명을 숨지게 하고 김모(48)씨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

김씨는 불을 지른 뒤 방에서 옷가지 등을 챙겨 2층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난 뒤 광주공원 인근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광주역으로 다른 노숙자를 만나러 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범행 직후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질 조짐을 보였음에도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료 수용자 7명을 그대로 둔 채 혼자 빠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1명이 매캐한 냄새를 맡고 숙소 밖으로 나오려 하자 "아무 일도 없다"며 방으로 돌려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러나 숙소를 빠져나온 뒤에는 선교원 직원에게 "불이 났으니 119와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잠은 음주 등으로 선교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선교원 관계자들이 평소 자신의 이 같은 생활 태도를 나무랐으며 ▲숙소 청소 문제로 다툰 동료 노숙자들에게 앙심을 품어오다 이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등 전과 4범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새 희망 복지 선교원'에 입소했으나 적응하지 못해 두 달 뒤 자진 퇴소했다. 이후 마땅히 갈 곳이 없자 김씨는 올해 7월 다시 선교원을 찾았지만, 10월 말 음주문제로 강제퇴소를 당하는 등 선교원 입·출소를 반복해 왔다. 김씨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자 지난 6일 선교원을 다시 찾았다가 5일만에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

한편 경찰은 13일 오전 최씨 등 4명의 사망자 시신을 부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신원확인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2006 광주비엔날레' 폐막... 풍등 날리기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앞에서 열린 '2006 광주비엔날레' 폐막식. 박광태 광주시장·한갑수 비엔날레 이사장 등 내외빈들과 시민들이 개인 소망과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축하,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문구를 적은 풍등(風燈) 30여 개를 날려보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죽어서도 떠도는 희생자들

가족 외면...나흘째 빈소도 못 정해

'새 희망 복지선교원'에서 생활하던 중 동료 수용자의 방화로 목숨을 잃은 김영근(73)씨 등 4명은 죽어서도 외로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의 시신은 광주시 남구 진월동 씨티병원 영안실에 안치됐지만,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사체가 타버린데다, 빈소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검사를 의뢰, 유족을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 하지만 가장 고령인 김씨는 20여 년 전 선교원에 입소한 후, 호적상 본적을 선교원 주소로 작성해 그의 죽음을 알릴 가족·친지가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20여 년 간 경찰을 떠돌던 최운성(48)씨 등 다른 세 사람의 가족들도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소재지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사망자들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다시피 생활을 해와, 시신이 안치된 병원엔 아무도 찾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도 "사망자의 가족이 '죽음'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장례 절차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거부할 경우 관할 남구청에 장례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피고소인 진술조사"

고소인에 공개해야"

법원 판결

수사기관의 피고소인 진술조사는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소인들의 허위 진술·증언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모씨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소인들의 피의자 신분조서

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10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04년 5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씨는 윤모씨 등 관원자 16명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이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원침 (6974)



'학교 폭력' 가출 초등생 귀가 입원

○...동료 학생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가출했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귀가했으나 굶주림과 폭력 충격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12일 서울 노원경찰에 따르면 모초등학교 6학년 김모(12)군은 지난 9일 오후 '같은 학교 애들이 계속 괴롭힌다. 졸업식 전까지 몸을 만들어 돌아와 해볼 수 있는 만큼 해 보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가출했다가 12일 새벽 0시 30분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김군은 집 한편 앞에서 "쉬고 싶다. 동생 줄 빼빼로를 사왔다"는 말을 남기고 쓰러졌는데, 아버지 김씨는 "아들이 (11일) '빼빼로 데이'라 아빠·엄마와 동생 줄 빼빼로를 문 앞에 두고 다시 나가려고 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다.

○김군이 가출 때 남긴 메모에는 "수개월간 다른 반 아이들이 나를 놀이개로 깔고 가 싸움을 걸고 무릎을 꿇게 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연합뉴스

TOEIC 만점의 꿈!
"영어외국어"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비대학생 취업준비생 공통권

토마토 토익
해커스 토익

062-222-6258 www.donga.tv

외국어학원 最頂上

동아외국어학원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동료 및 회사 가족을 위한 전기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100%정액결제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비밀드 리본 지킴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010-9469-9973
(062)673-4881